

출판을 향한 믿음

李康淑

서울대 음대 교수

나는 음악을 믿었다. 처음에는 베토벤 음악을 믿었다. 점차로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등의 음악도 믿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음악에 걸었다. 음악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나에게 구원을 제공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구원의 대상이 달라졌다.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등의 음악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쇤베르크를 필두로 한 이른바 현대음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되었다. 옛날 음악이나 오늘날의 음악을 통해서도 구원이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는 또 변한다. 음악을 처음에는 '민다가' 나중에는 '알게' 된다. 내가 처음 믿었던 베토벤 류의 음악에는 그 음악을 있게 하는 근거인 '음악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쇤베르크 류의 음악, 한국 전통음악 류의 음악 등을 있게 하는 '음악언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음악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종류의 자연언어가 있다. 가까이에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있고 멀리에는 영어와 독일어 등이 있다. 문학의 목적을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의 수단 중의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언어일 것 같다.

이 글의 시작은 "나는 음악을 믿었다"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문학을 믿었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문학을 믿었다라고 말할 친구는 과연 어떠한 문학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거례의 시를 믿었다가 나중에는 황지우의 시를 믿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김소월의 시를 믿다가 나중에는 김수영의 시를 믿었다는 이야기인지를 물어본다.

이러한 물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대답을 얻게 한다. 이 대답은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지독하게 괴롭힌다. 이 세계의 어느 구석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럿으로 흩어져 있다. 몸체도 흩어져 있고 정신들도 흩어져 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음악을 믿는 사람이나 문학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나 문학 같은 것은 애초부터 믿음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운 일군의 인간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권력을 믿는 사람이나 금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은 음악이나 문학의 가치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확실성보다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나 역시 다양성은 중요시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다양성은 어디까지나 '하나' 속의 '여럿'이라는 성질을 띠 때 그 값어치가 발휘될 수 있다.

금년을 마무리 하는 마당에서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럿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나의 결론은 '책을 믿자'이다. 나는 권력이나 금력보다 음악과 문학을 더 믿는다. 그러나 그것 위에 '책'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책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온당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라는 생각에서다. 우리에게 온당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현들의 말씀 역시 책의 형태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성현들의 책만이 아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보면 하루에도 수십권의 소중한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책에의 믿음이 일반화되는 국민적 심성의 함양만이 우리의 삶을 온당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는 한번 더 '책을 믿자'라는 구호를 마음속으로 외쳐보고 싶다.

뉴스	2	“출판유통 과학화의 힘찬 첫걸음”·외
표지인물	4	「한국정원문화」 펴낸 민경현교수
송년예세이	6	책읽기에서 경험하는 ‘사람냄새’ — 정진홍
	7	몇권 책으로 남은 서른해 서생의 삶 — 박제천
송년특집	8	1991년의 출판·출판계 10대 뉴스
	12	베스트셀러의 유형학으로 본 '91 책의 사회사
	14	편집자가 쓰는 베스트셀러의 이력사
서평	16	천혜봉 「한국서지학」 — 류탁일
		김정자 「한국여성소설연구」 — 강금숙
	17	정정호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문학」 — 장경렬
		강영계 외 「니체와 현대철학의 이해」 — 황문수
	18	김용직 외 「한국현대사사의 쟁점」 — 송희복
		정현기 「비평의 어둠건기」 — 이재선
	19	뫼프렌 「미적 체험의 현상학」 — 오병남
	20	문형렬 「슬픔의 마술사」 — 이광호
		이순원 「우리들의 석기시대」 — 이경호
저자인터뷰	21	연작장시 「처용단장」 펴낸 김춘수씨
출판화제	22	기업가와 연예인도 ‘인기저자’
화제의 책	24	김민수 엮음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전4권
이색출판	25	복거일의 지적 무협지 「역사속의 나그네」
이 책 그 사람	26	「여성수첩」 펴낸 손숙씨
		「보름간의 문학여행」 펴낸 엄혜숙씨
	27	「비행기이야기」 펴낸 임달연씨
		「김성시대의 칼라마케팅」 펴낸 김훈철씨
해외출판	28	美출판전문지가 뽑은 올해의 베스트북 — 이희재
세계의 책	30	전쟁을 매개로 본 유럽정치사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편집자의 말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올려지는 말이긴 하지만, 올해 역시 다사다난했다. 굳이 나라 안팎의 크고 중요한 문제들에 눈을 돌릴 것도 없이, 우리 출판계만 하더라도 올 한해는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송년호로 꾸며진 이번호는 신미년 한해동안 우리 출판의 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이 잘 팔렸으며 그것의 사회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해외소식으로 미국의 「퍼블리셔스 위클리」지가 뽑은 1991년 베스트북을 소개한다.

표지인물로는 「한국정원문화」를 펴낸 민경현교수를 모셨다. 성실한 고증과 치밀한 현장조사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옛것의 참모습을 오늘에 복원해 놓고 있는 민교수의 이 대작은 사계의 주목과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